

“군민 공감 행정 실현할 것”

최영일 순창군수, 마을 방문·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주제

최영일 순창군수가 27일 군청 집무실에서 2024년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등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663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다음달 1일까지 3회에 걸쳐 각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군민들로부터 접수된 총 663건의 건의사항 중 마을 방문에서 571건, 군정설명회에서 92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도로시설과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 가장 많은 285건이 접수되었고, 이어서 건강장수와, 경제교통

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많은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가 현지 출장과 건의자 면담 등을 통해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완료된 건, 추경예산 편성 건, 상급 기관 건의 및 타 기관 이첩, 장기 검토 및 시행 불가 등 다양한 처리 상황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접수된 건의사항과 추진 중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해 군민이 만족하는 공감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부서 간 업무의 공조를 철저히 해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순창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주민 건의사항을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27일 군청 집무실에서 '2024년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주재했다.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와 임실치즈농협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및 답례품 홍보를 실시했다.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임실치즈농협 임실교육지원청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홍보

치즈·요거트 답례품도 알려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와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및 답례품(치즈, 요거트)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유관기관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동참 및 임실치즈농협 답례품인 치즈 및 요거트 홍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치즈 답례품은 가격 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12월말 기준 기부자의 65%가 선택한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이다.

이진산 지부장은 “임실교육지원청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협은 관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농업·농촌 및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세창 교육장은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으며 임실교육지원청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식 조합장은 “임실지역 답례품 선호도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낙농가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남원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변화를 위한 Power of one'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광양 YWCA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양민 강사를 초빙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남원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해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4월 12일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폭력 예방 및 가정 내 학대 방지를 위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순창, 범시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기 설치 운영

순창군이 27일 벼에 감염돼 쌀의 품질이나 수량이 떨어뜨리는 키다리병 등을 예방하고자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온탕소독기 21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말까지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탕소독은 벼 종자를 물 온도 60°C에서 10분 동안 범시를 담갔다가 15°C 냉수에 10분간 식히는 친환경 소독법으로, 키다리병, 벼일선충, 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범시에 붙어 있는 병균을 제거하여 범시 발아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방제 효과도 뛰어난 친환경 병 생산 과정의 재배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약제소독만 실시해 파종하는 것보다 온탕소독을 병행 후 파종하면 더 높은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농가는 반드시 약제소독과 온탕소독을 철저히 해 파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김혜순 한복전문가, 남원시 홍보대사 되다

남원시는 지난 26일 김혜순 한복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김혜순 한복 대표 김혜순씨는 ‘토지’, ‘황진이’를 비롯해 ‘서편제’, ‘천년화’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의상 제작을 맡았으며, 남원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21년 한복문화 주간을 맞아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개최된 기획 전시 ‘Dialogue, 賞春曲’을 통해서였다.

김혜순씨는 “한복하는 사람으로 춘향의 도시 남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 세계적인 지역축제를 지향하는 2024 제94회 춘향제의 드레스 코드가 한복인 만큼 남원이 한복으로 물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 춘향제가 ‘춘향, COLOR 愛’ 반하다! 라는 기치 아래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함께 만드는 축제로 꾸며지는 만큼, 한복



남원시는 지난 26일 김혜순 한복전문가(사진 왼쪽)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원을 다채롭게 홍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30일 개막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서 31일까지 공연·체험행사 등 풍성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첫 번째 벚꽃축제가 오는 30일 화려하게 열린다.

31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벚꽃축제는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한다.

1일 차 메인 공연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리허설을 거쳐 △어린이 꿈의 오케스트라 △팔페라 사파나무 △임실 필봉농악 △개막식 및 축하공연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오후 3시 개막식과 더불어 마련된 축하공연에는 만능트롯돌 김희재, 천태만상 윤수현, 중년들의 대동령 요요미, 떼따떼다 영기 등이 출연, 최상의 흥겨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2일 차인 3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리허설을 거쳐 △제35보병사단 군악대 △운암라인댄스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로 2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체험 부스 존은 △옥정호 답수어 그리기 △붕어?벚꽃 달고나 체험 △벚꽃 바람개비?꽃화분 만들기 △벚꽃 비즈 리본 공예 체험 △블레 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먹거리 존은 지역 단체들이 주로 참여해 다양하고 가성비 높은 간식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과 더불어 벚꽃 개화기간에 옥정호를 찾으면 순환도로 가득 핑크빛 벚꽃 물결이 출렁여서 발길 닿는 곳곳이 포토스팟이 되어 방문만으로도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따스한 봄이 다가오면서 붐벼서 생태공원과 요산공원에 조성한 튼림과 수선화 등 봄꽃들이 형형색색 장

관을 이루면서 관광객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축제 기간에 삼암리 주차장에서 행사장 입구까지 20여 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편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 관광지인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붐벼서 생태공원은 지난해 3월 정식 개장 이후 10개월여간 40만여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 3월 1일 재개장하여 3월 한달간 무료로 운영되면서 개장 3주 만에 3만6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심민 군수는 “처음으로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풍성한 축제를 준비 중”이라며 “살리는 봄날, 옥정호에서 봄의 기운을 실컷 만끽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